

출 장 결 과 보 고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중국의 대 한국 쌀 수출실태 및 수출기업 조사
2. 출장목적
 - 중국의 대 한국 쌀 수출실태 및 수출기업 조사
 - 中糧集團(COFCO)進出口公司, 吉糧集團進出口公司
 - 중국 동북3성 쌀산업의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및 자료 수집
 - 중국측 위탁연구기관과 업무협의
3. 출장지역: 중국 북경시 및 요녕성 대련시(大連市)
4. 출장기간: 2009. 11. 9(월) ~ 11.13(금), 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전형진

6. 주요 출장일정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11.9(월)	인천→중국 북경 본원 중국사무소	· 출발 및 도착 · 위탁과제 관리현황 및 향후일정 논의
11.10(화)	中糧集團有限公司 大米部	· 기업현황, 대 한국 쌀수출 현황 · 중국의 쌀 수출정책 및 자료 수집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위탁과제 연구진행 상황 점검 · 연구내용 협의, 관련자료 수집
	북경→요녕성 대련	· 출발 및 도착
11.11(수)	中糧米業(大連)有限公司	· 기업현황, 대 한국 쌀수출 현황 조사 · 수출용 쌀 가공실태, 가공시설 조사
11.12(목)	吉糧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 大連良友穀物有限公司	· 기업현황, 대 한국 쌀수출 현황 조사 · 수출용 쌀 가공실태, 가공시설 조사
	요녕성 대련→북경	· 출발 및 도착
11.13(금)	북경→인천	· 출발 및 도착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연 락 처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리닝후이(李寧輝) 리리위안(李麗原) 자오지엔(矯健)	농업정책연구실 주임 농업정책연구실(박사) 농업정책연구실(박사)	136-8114-3251 136-9133-9300 152-1013-2619
	자오지앙(矯江)	총농예사(박사)	138-0456-6093
中糧集團有限公司 大米部 (주)대우인터네셔널	루잉(魯英) 리밍(黎明)	부총경리 고객경리	136-0130-3191 139-1105-6983
	자오샤오리(趙曉麗)	북경사무소 차장	138-0100-3584
中糧米業(大連)有限公司 (주)대우인터네셔널	송페이(熊飛) 종샤오웨이(宗曉煒) 리홍광(李洪光)	부총경리 재정담당 대련사무소 과장	138-8951-6261 135-8168-4583 133-5221-0500
	페이위예중(費躍忠) 귀권(郭君)	곡물부 경리 곡물부	133-2141-2258 137-5618-4391
大連良友穀物有限公司	리우양(劉洋)	부사장	135-1575-0148

II. 주요 출장 결과

1. 위탁과제 연구협의회 개최

☐ 위탁기관 및 연구책임자

- 위탁기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연구책임자: 리닝후이(李寧輝) 박사(농업정책연구실 주임)

☐ 연구협의회 개요

- 일시: 2009. 11. 10(화), 14:00~16:00
- 장소: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3층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전형진, 정정길
 - 중국측: 리닝후이(李寧輝), 리리위안(李麗原), 청광옌(程廣燕), 자오지엔(矯健), 왕샤오링(王曉凌), 평시엔(馮獻)
- 안건: 최종보고자료 검토 및 수정 보완 요구

□ 연구협의회 주요 내용

○ 최종보고 자료 검토

- 최종보고서는 본원에서 요청한 보고서 목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음.
- 중단립종 쌀 생산관련 데이터가 2000년 이후 통계만 수록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000년 이전 통계도 추가하도록 하고, 추정된 데이터라면 추정 근거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도 언급해 줄 것을 지적하였음.
- 동북3성의 쌀 생산현황을 각 성별로 지도로 표시하였는데 본원 최종보고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전국 및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 수급 전망은 위탁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서 운용하는 CAPSiM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쌀 수급전망만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위탁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국의 중단립종 쌀 수급전망 및 동북 3성의 중단립종 쌀 수급 전망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동북3성 쌀산업의 생산계열화 실태조사는 모두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으나 최종보고서상에는 조사 내용이 모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현지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향후 계획

- 계약서상 위탁과제의 연구기간은 10월 말까지 완료되었으나 기 제출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본원의 대 한국 중단립종 쌀 수출기업 조사는 중국측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며, 최종보고서에 조사 결과를 수록하도록 하였음.

2. 대 한국 중단립종 쌀 수출기업 현황

2.1. 중량집단유한공사(中糧集團有限公司, COFCO)

□ 기업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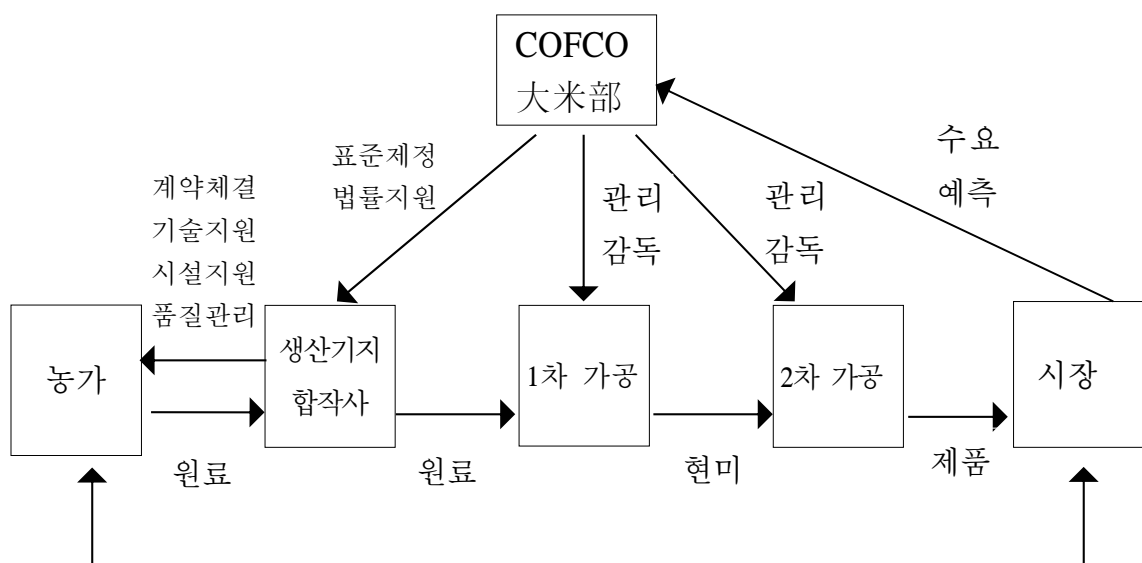
- COFCO의 전신은 1949년 천진에 설립된 화북대외무역공사(華北對外貿易公司)이며, 현재 중국 최대의 식품생산기업이자 농식품의 수출입에 종사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임.

- 현재 COFCO는 中糧糧油, 中國糧油, 中國食品, 부동산·호텔, 中國土畜, 中國
頓河, 中國包裝, 中國發展, 金融 등 9개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홍콩
증시 상장 기업 3개(中國食品(HK 0506), 中糧控股 (0606), 蒙牛乳業(HK2319)),
중국 국내 증시 상장기업 3개(中糧屯河(600737), 中糧地產(000031), 丰原生化
(000930))을 보유하고 있음.
 - 2007년 中國糧油食品(集團)有限公司에서 中糧集團有限公司로 개명
 - 2008년 미국 [재부] 잡지에서 발표한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398위 차지
- COFCO는 중국 정부의 쌀 수출 쿼터를 배정받은 2대 기업 중 하나이며 백미,
현미를 일본, 한국, 동남아, 중동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음.
 - COFCO 大米部는 쌀 수출입을 책임지는 부서이며 가공, 국내판매 업무도 총
괄하고 있음.
 - COFCO의 누적 쌀 수출량은 약 6,200만 톤, 수입은 약 870만 톤 정도이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영 가공공장 설립 및 기존 가공공장을 매
입하여 제품 공급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쌀 가공을 핵심으로 하여 전
후방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가공공장+마케팅+브랜드'라는 모델을 구축하
였음.
- 주요 쌀 제품
 - COFCO는 서로 다른 소비자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수용으로 '푸
린먼(福臨門)', '우후(五湖)', '진화(金華)', '진디(金地)', '동하이밍주(東海明珠)'
등 가격을 차별화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 이 중 '푸린먼(福臨門)'은 국내 고소득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우후(五湖)'는
일반 소비자, '진화(金華)', '동하이밍주(東海明珠)' 등은 저가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 기업의 농산업화 경영 모델

- COFCO는 과거 '수출+무역' 업무에서 2005년부터 '무역+가공공장+마케팅' 업
무로 전환하였으며, 직영 가공공장의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가공공장을 매
수하여 공급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쌀 가공을 핵심으로 하여 전후방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공공장+마케팅+브랜드'라는 모델을 구축하였음.
 - 내수 업무가 대폭 성장하여 주요 판매지역은 장강 삼각주지역으로부터 신
강, 북경지역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7년 COFCO의 쌀 매출액은 30억
위안(약 5,085억원)을 초과하였음.

- COFCO는 동북지역에 우수품종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농업협작사를 설립하여 품질 안정과 안정을 도모하는 일련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농민과 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당해연도의 벼 생육상태에 근거하여 벼 수확, 건조, 저장 시간 및 방식을 확정하여 수확 및 저장과정에서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며, 시장평균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벼를 구매함.
- 벼의 파종, 수확, 가공, 운송, 판매과정을 계열화하여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가공 및 판매

- COFCO는 중국 최대의 쌀 수출입 기업으로서 大米部 산하에 中糧(江西)米業有限公司와 中糧米業(大連)有限公司 등 2개의 직영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주산지역의 가공공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 中糧(江西)米業有限公司는 COFCO와 江西金佳谷物 주식유한회사의 공동 투자로 2001년 8월 설립, 2004년 11월부터 제품을 본격 생산하였음.
- 연간 가공능력은 찰쌀(Parboiled rice) 18만 톤, 백미 4만 톤이며 주로 찰쌀은 유럽,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하고, 백미는 주로 홍콩, 일본, 한국 등 전통시장에 수출하고 있음.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50여 만 톤을 가공하였으며, 매출액은 약 30억 위

안에 달함. 또한 매년 직접적으로 2,000만 위안, 간접적으로 천 만 위안의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음.

- 中糧米業(大連)有限公司는 COFCO가 약 3.14억 위안을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연간 23만 톤의 가공능력을 가진 아시아최대의 쌀가공기업으로 2009년 11월 14일 가동을 시작하였음.
- 대련항에 인접한 가공공장은 면적이 48,800㎡으로 27개 공정으로 이루어진 가공라인 6개와 18개의 포장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가공시설은 일본, 스위스에서 제작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음.
- 1일 생산능력은 800톤이며, 6개의 생산라인에서 6개의 서로 다른 품종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음. 2010년까지 10만 톤 규모의 창고를 건설할 계획임.
- 파종, 수확, 저장, 가공,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일체화한 동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쌀가공기업이며, 중국 최초로 항구 인접지역에 설립되어 동북지역 쌀산업의 산업화경영 촉진 및 북부지역의 식량을 남쪽지역으로 공급(北糧南運)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중단립종 쌀을 가공하여 해상운송을 통해 국내 장강삼각주와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임.
- 원료곡 확보 차원에서 최근 '中糧丹東鴨綠江農業聯合生產專業合作社'를 조직하였으며 2~3년 내에 계약재배 면적을 2만 ha로 확대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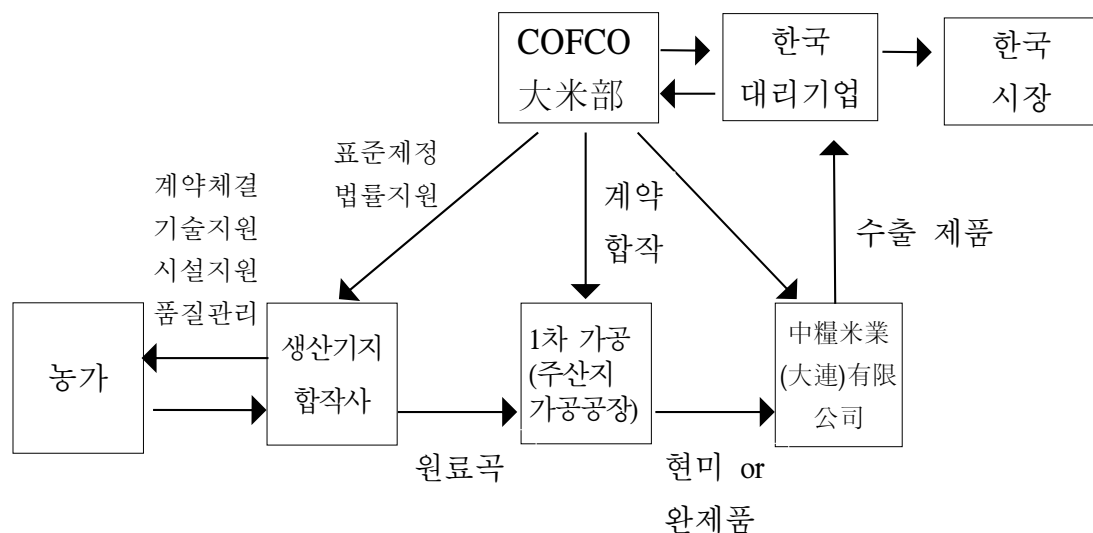
□ 대 한국 중단립종 쌀 수출

- 중국은 쌀 수출쿼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 2개 기업만이 수출쿼터를 배정받아 수출하고 있음.
- 대 한국 수출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COFCO 만이 쌀 수출쿼터를 배정받았으나 2000년부터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가 수출쿼터를 배정받고 있음.
-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쌀 쿼터 배정물량은 9:1 정도로 COFCO가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 이는 옥수수를 주로 수출하는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쌀 가공능력의 한계가 주요 원인임.
- COFCO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산재한 1차 쌀가공 공장과 생산기지를 아우르는 수출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향후 최근 완공된 中糧米業(大連)有限公司를 중심으로 공세적 수출경영을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2007년 COFCO의 대 한국 밥쌀용 쌀 수출물량 29,626만 톤은 요녕성 은정미업, 은주미업, 심양제1양고 등 3개소, 흑룡강성의 북대황 군천제미창, 북대황 보양 제미창, 북대황 수빈제미창, 북대황 강빈제미창, 북대황 청산제

미창, 북대황 조양제미창 등 6개소에서 가공되었음.

- COFCO는 (주)대우인터내셔널을 국내대리점으로 선정하여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MMA수입쌀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 COFCO는 지금까지 주로 동북 3성 중단립종 쌀 주산지의 가공공장 혹은 기업과 합작하여 이들 가공공장과 기업이 수매하여 1차로 가공한 현미를 기차로 운송하여 수출항인 대련에서 2차 가공 및 포장하여 수출하였음.
- 이와 함께 COFCO는 우수한 품질의 원료곡 확보를 위해 동북 3성에 다수의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현지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기술지원과 함께 품질을 관리하여 계약가격으로 수매하는 계열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수출물량을 낙찰받기 위해 수출 쌀의 가공과정에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검정원의 지도·자문하에 선적지 검정업체(OMIC)가 원료보관단계에서 원료곡 점검, 가공 및 포장과정에서 제품검사, 가공지도, 선적단계에서 선적항 검사 및 선적지도, 선적감도, 안전수송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음.

<COFCO의 대 한국 중단립종 쌀 수출 개념도>



2.2. 길림식량그룹유한공사(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

□ 기업 개황

-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는 1996년 8월 길림성 인민정부의 출자로 식량 계약재배, 식량가공, 식량선물, 부동산, 호텔업, 농업보험업 등에 종사하는 대형 국유 기업임.
- 현재 11개 자회사와 10개의 지분보유 회사가 있으며 국가와 성 정부가 인정한 농업산업화 대규모 기간기업임.
 - 자회사: 吉林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收儲經銷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公主嶺金玉收儲有限責任公司, 吉林糧食集團米業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農牧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大連運銷公司, 吉林糧食集團新吉糧大酒店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資產經營管理有限公司, 吉林糧食集團房地產開發有限公司, 吉糧期貨經紀有限公司

□ 대 한국 중단립종 쌀 수출

- 중국은 쌀 수출쿼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 2개 기업만이 수출쿼터를 배정받아 수출하고 있음.
 - 대 한국 수출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COFCO 만이 쌀 수출쿼터를 배정받았으나 2001년부터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가 수출쿼터를 배정받고 있음.
 - COFCO와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쌀 쿼터 배정물량은 9:1 정도로 COFCO가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 이는 옥수수를 주로 수출하는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쌀 가공능력의 한계가 주요 원인임.
- 식량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吉林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는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자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옥수수와 쌀 수출경영권을 부여받았음.
 - 2001년 처음으로 한국의 수입 현미 입찰에 참여하여 75%를 낙찰받아 수출하였음. 앞서 COFCO가 현미와 백미를 모두 수출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까지 현미만 수출하고 있음.
 - 2001~2008년 동안 대 한국 현미 수출량은 약 20만 톤 정도로 매년 평균 3~5만 톤을 수출하였음.
 - 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의 또 다른 자회사로서 주로 내수에 주력하고 있는 吉林糧食集團米業有限公司가 운영하는 쌀 가공공장을 비롯해 주로 길림성과 요녕성에 산재한 쌀가공 공장과 계약을 통해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 참고로 2007년 吉林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의 대 한국 수출 물량은 35,947만 톤으로 길림성 길림한광미업, 길림청화미업, 길림가실미업, 길림수곡가창, 길

량매하곡물유한공사, 길량금합미창, 록부미업 등 7개소, 요녕성의 요녕압록 강미업 등 2개소에서 가공되었음.

- 吉林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가 1999년 옥수수과 쌀의 수출경영권을 획득한 이후 처음에는 LG를 한국의 대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년부터 (주)신송식품을 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大連良友穀物有限公司

- 大連良友穀物有限公司는 吉林糧食集團進出口有限公司와 계약을 통해 한국 수출 현미를 가공하는 요녕성 대련시 소재 쌀 가공공장임.
 - 1999년 설립되었으며 大連亿禾米業有限公司이 전신임. 1개의 가공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일 가공능력은 120~140톤 정도임.
 - 대 한국 수출물량은 연간 평균 5,000톤 정도이며, 2008년도에는 9,004톤을 수출하였음.
- 大連良友穀物有限公司의 내수용 쌀 제품은 '이허(億禾, YIHE)'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 한국, 태국, 스리랑카,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지로 쌀을 수출하고 있음.
 - 일본 수출용 쌀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품종을 들여와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음.
 - 일본 수출용 쌀 이외에도 길림성의 2개 현에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주로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수매한 후 기차를 통해 대련에 위치한 가공공장으로 운송하고 있음.
 - 내수시장은 저가시장과 고가시장을 구분하여 제품을 차별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산동과 대련지역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음.

3. 출장 소감

- 대 한국 수출용 쌀(백미 및 현미)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의 가공시설은 대부분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공된 쌀의 품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파견한 전문가의 선적지 검정 지도·자문 및 선적지 검정업체(OMIC)의 검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 이후 중국 동북3성 쌀은 우리 쌀산업에 최대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국의 중단립종 쌀 소비 증가, 수출 제한정책 등으로 수출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지 수출 기업, 가공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시장이 크지 않아 동북3성 중단립종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대 한국 수출물량이 극히 미미하여 수출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08년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484만 톤)은 동북3성 중단립종 쌀 생산량(1,824.6만 톤)의 26.5%이며, 우리나라의 MMA 수입쌀 전체 물량은 1.6%에 불과함.
-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은 40%는 정부가 구매 후 비축, 20%는 농가 비축, 40%는 시장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유통 물량 중 동북3성 소비 30%, 외지소비 및 수출이 70% 정도임.
- 대 한국 쌀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동북3성의 쌀 경영체들은 생산, 가공, 유통의 일체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의 다양한 생산계열화 모델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